

##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안성아, 공정현\*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The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Seong-Ah Ahan, Jeong-Hyeon Kong\*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e test, 피어슨 상관관계 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성별, 지각된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와 주관적 행복감 향상 등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For the data collec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utilizing the questionnaire targeting 188 students(third & fourth year) of two nursing colleges located in a province, from September 1<sup>st</sup> to September 30<sup>th</sup> 2019.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for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happiness,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The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major satisfaction, gender, perceived stress, subjective happines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ose variables was 21.9%.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lex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the elements like decrease of perceived stress and improvement of subjective happines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 간호학과는 2019년 기준으로 간호

교육인증평가를 받은 간호교육기관은 총 203개가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에서는 모든 졸업생이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상

\*Corresponding Author : Jeong-Hyeon Kong(wjdgus0063@hanmail.net)

실습 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들로 미래의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다.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1].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강의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대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원 환경 자체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 낮은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도 낮아지게 되므로[3]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4,5], 행복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이다[5,6]. 행복이라는 단어는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과 적응력과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한다[6,7].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학점의 비중이 높으며, 과중한 교과목 이수,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준비와 압박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복감 수준이 낮다[8].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일반 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9].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부담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 수행과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0].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어[11,12] 임상실습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11]. 이와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성이 매우 깊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은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13],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 경험[14], 학제 간 성취동기, 임상수행능력[15], 임상수행능력, 전문직 자아개념[16] 등이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을 높이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J시와 C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고, 비밀유지 보장 및 응답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 사용됨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에서 유의 수준( $\alpha$ ) .05, 검정력 ( $1-\beta$ ) .95, 효과크기 .05, 독립변수 7개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수는 146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고 19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2부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제외하여 18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관적 행복감 측정도구는 Lyubomirsky와 Lepper[17]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과 Jeon[18]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이었다

### 2.3.2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ohen 등[19]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 등[20]의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사용하였다. 부정적 지각 5문항, 긍정적 지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없었다' 0점,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지각에 대한 5문항은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으며, 이는 긍정적 지각의 결여를 의미. Park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부정적 지각 Cronbach's alpha=.77, 긍정적 지각 Cronbach's alpha=.74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 2.3.3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21]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 문항은 역 채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검증은 t-test,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66명(88.3%), 나이는 23세 이상이 69명(36.7%), 학년은 4학년이 96명(51.1%),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명(80.9%),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7명(51.6%), 대인관계가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8명(68.1%),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21명(64.4%), 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4명(71.3%)로 가장 많았다.

### 3.2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평점 7점 만점에  $4.72 \pm 0.76$ 점, 지각된 스트레스는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2.90 \pm 0.42$ 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46 \pm 0.43$ 점으로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t=2.71, p=.007$ ), 전공만족도( $F=11.63, p<.001$ ), 대인관계( $t=9.03, p=.003$ ), 주관적 건강상태( $F=7.54, p=.001$ )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8)**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22(11.7)
	Female	166(88.3)
Grade	3rd	92(48.9)
	4rd	96(51.1)
Religion	Yes	36(19.1)
	No	152(80.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97(51.6)
	Good	86(45.7)
	Not Satisfaction	5(2.7)
Relationship	Good	128(68.1)
	Usually	60(31.9)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21(64.4)
	Usually	60(31.9)
	Not heathy	7(3.7)
School Grades	Higher	25(13.3)
	Middle	134(71.3)
	Lower	29(15.4)

**Table 2. Degree of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188)**

Variable	Range	Min	Max	M score±SD
Subjective happiness	4.50	2.50	7.00	4.72±0.76
Perceived stress	2.20	1.90	4.10	2.90±0.4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23	1.71	4.94	3.46±0.43

**Table 3. Differences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Variable	Categorie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SD	t or F (p)
Gender	Male	3.69±0.61	2.71 (.007)
	Female	3.43±0.40	
Grade	3rd	3.40±0.46	3.42 (.066)
	4rd	3.52±0.41	
Religion	Yes	3.43±0.52	0.43 (.669)
	No	3.47±0.4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3.55±0.47 <sup>a</sup>	11.63 (<.001) a>b>c
	Good	3.40±0.33 <sup>b</sup>	
	Not Satisfaction	2.72±0.57 <sup>c</sup>	
Relationship	Good	3.53±0.42	9.03 (.003)
	Usually	3.32±0.45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53±0.43 <sup>a</sup>	7.54 (.001) a>b, a>c
	Usually	3.36±0.41 <sup>b</sup>	
	Not heathy	3.01±0.34 <sup>c</sup>	
School Grades	Higher	3.52±0.31	0.61 (.547)
	Middle	3.46±0.44	
	Lower	3.39±0.43	

**3.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지각된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 $r=-.32, p<.001$ )를 보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은 양(+)의 상관관계( $r=.31, p<.001$ )를 보였다.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 $r=-.39, p<.001$ )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N=188)**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r(p)	Perceived stress r(p)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p)
Subjective happiness	1		
Perceived stress	-.39 (<.001)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1 (<.001)	-.32 (<.001)	1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와 상관분석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 등 총 6개의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3].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 $F=9.721, p<.001$ ),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에서 Durbin-Watson은 1.97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인 경우 ( $\beta = .79, p < .001$ ), 전공만족도에서 보통인 경우 ( $\beta = .66, p = .002$ ),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18, p = .013$ ), 성별( $\beta = -.18, p = .007$ ), 주관적 행복감( $\beta = .17, p = .025$ ),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0.14, p = .045$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총 24%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188)**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3.52	.42		8.49	.00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9	.18	.79	3.83	.000
Major** Satisfaction -normal	.57	.18	.66	3.22	.002
Gender***	-.24	.08	-.18	-2.74	.007
Perceived stress	-.18	.07	-.18	-2.50	.013
Subjective happiness	.10	.04	.17	2.25	.025
Subjective health status	-.10	.06	-.14	-1.85	.045
Relationship	.00	.07	.01	.13	.897

Dummy variable: \*, \*\*0=dissatisfaction, \*\*\* 0=male  
Durbin-Watson 1.989, F=9.337, p=.000, R<sup>2</sup>=.27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4.72점(7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Yang, Lee, Yu[24]의 연구에서 5.03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n과 Lee[25]의 연구에서 5.00점보다 다소 낮았으며, 고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6](2020)의 연구 4.75점과 비슷하였다.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스스로 하는 일에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27] 교육기관에서도 행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친구지지와 여가능력이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28] 학년별 peer caring 프로그램 개발, 집단 행복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2.90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Yang, Lee, Yu[24]의 연구에서 2.21점, Nam과 Park[29]의 연구 1.94점, Lee와 Kim[30]의 연구 2.55점 보다 다소 높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매우 깊으므로[20]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각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증재 전 지각된 스트레스 29.38점에서 사후 24.9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다[31]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교육기관에서도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32] 일치하였고,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Park Lee, Gu[1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적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나쁘다고 표현한 대상자의 수가 균형적이지 못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사료되며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11],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18,24]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대학에서는 신입생부터 졸업생까지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성별, 지각된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2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34]의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 [33,34]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불만족은 향후 간호사로 성장 시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21]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 주관적 행복감 향상 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등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복합적인 임상실습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1, 2학년때는 자신의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기 위한 강점 찾기와 건강관리하기, 진로 확산, 3, 4학년 때에는 정기적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전공학점 감소로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이 아니어서 독립변수에서 제외되어 분석되어 향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라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성별에 따른 관리 방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대인관계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별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에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반복연구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따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주관적 행복감 향상과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 Y. Jho. (2010).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39-248.  
DOI : 10.5977/jkasne.2010.16.2.239
- [2] H. S. Cho. (2002). Nursing Student's Stress and Anxiety,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Research Bulletin of Jinju Health College*, 25(1), 53-72.
- [3] K. E. Kim & B. Y. Le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85-895.  
DOI : 10.5392/JKCA.2014.14.10.885
- [4] J. H. Park & G. Y. Jo. (2016).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511-522.  
DOI : 10.7465/jkdi.2016.27.2.511
- [5] Y. S. Kim & M. Y. Han. (201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501-510.  
DOI : 10.11111/jkana.2015.21.5.501
- [6] M. S. Park. (2018).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elf 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4), 395-402.  
DOI : 10.5762/KAIS.2018.19.4.395
- [7] G. M. Kim & S. K. Cha. (2013).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22-332.  
DOI : 10.5392/JKCA.2013.13.01.322
- [8] Y. C. Kwon, C. Y.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2713-6442.  
DOI : 10.14400/JDC.2018.16.1.197
- [9] G. Y. Jo & H. S. Park.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2(1), 160-169.  
DOI : 10.5762/KAIS.2011.12.1.160
- [10] S. J. Shin & E. H. Hwang. (2018).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3), 156-163.  
DOI : 10.17496/kmer.2018.20.3.156
- [11] S. H. Jeong & S. H. Park. (2013).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6(1), 47-54.  
DOI : 10.7587/kjrehn.2013.47
- [12] Y. J. Son, E. Y. Choi & Y. A. So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4), 345-351.
- [13] M. K. Jeon & M. S.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40-48.  
DOI : 10.5762/KAIS.2017.18.1.40
- [14]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35-3647.  
DOI : 10.5762/KAIS.2014.15.6.3635
- [15] M. H. Sung. (2010).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90-98.
- [16] M. S. Park, M. H. Lee & J. A. Gu. (201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2), 111-123.
- [17] S. Lyubomirsky & H. 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18]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2), 123-132.  
DOI : 10.12934/jkpmhn.2016.25.2.123
- [19] S. Cohen, T. Karmarck & R. Mermelstein.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DOI : 10.2307/2136404
- [20] J. H. Park & Y. S. Seo. (2010).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611-629.
- [21] K. J. Cho & H. S. Kang. (1984).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4(2), 63-74.  
DOI : 10.4040/jnas.1984.14.2.63
- [22]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 [23] J. J. song. (2019).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sis statistics. 21cbook, 284-299.
- [24] E. M. Kim, Y. H. Yang, H. Y. Lee & M. Yu.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 294-303.  
DOI : 10.5977/jkasne.2016.22.3.294
- [25] M. S. Yun & D. H. Lee. (2017). Subtype Differ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in Emerging Adulthood.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3), 463-487.  
DOI : 10.15753/aje.2017.09.18.3.463
- [26] I. Y. Cho. (2020).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118-128.  
DOI : 10.5762/KAIS.2020.21.3.118
- [27] E. K. She, J. S. Koo, D. G. Lee, T. Y. Jeong & I. C. Choi. (2010). Korean Happiness Index and Its Meaning.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0(1), 213-232.
- [28] H. N. Lee. (2019).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appiness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2), 181-189.  
DOI : 10.12934/jkpmhn.2019.28.2.181
- [29] J. H. Nam & H. S. Park. (2020). The Effect of a Loving-Kindness and Copassion Meditation Program on the Empathy, Emotion, and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311-321.  
DOI : 10.5977/jkasne.2020.26.3.311
- [30] Y. K. Lee & L. H. Kim. (2014).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1953-1962.  
DOI : 10.5762/KAIS.2014.15.4.1953
- [31] Y. R. Yeom & K. B. Choi. (2013). The Effect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ast-Nursing Research*, 19(2), 104-113.  
DOI : 10.14370/jewnr.2013.19.2.104
- [32] E. H. Gil. (2018).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13(1), 43-51.  
DOI : 10.15715/kjhcom.2018.13.1.43
- [33] S. H. Han. (2019).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593-602.  
DOI : 10.35873/ajmhs.2019.9.7.053
- [34] H. Y. Koo & H. S. Im.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11-321.  
DOI : 10.5392/JKCA.2013.13.01.311

## 안 성 아(Seong-Ah Ahan)

[정회원]



- 1998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3년 3월 ~ 2018년 8월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 E-Mail : asa8269@hanmail.net

## 공 정 현(Jeong-Hyeon Kong)

[정회원]



- 2012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트레스, 심리적 외상, 노인
- E-Mail : wjdus0063@hanmail.net